

영암군 구제역 방역, 3km 방역대 내로 집중한다

3월 23일 기점으로 확산세 꺾여... 방역대 밖은 일상 회복으로 완화

영암군이 4월 1일부터 3km 방역대 내를 중심으로 구제역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3/13일 도포면의 한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이 확인된 이후, 확산 추세에 있었던 전염병 상황이 같은 달 23일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영암군은 그동안 추진했던 '통제초소 → 백신 접종 → 소독 실시 → 생석회 살포 → 사료 공급 체계 마련'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방역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영암군의회, 지역농·축협, 한우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3/18일 백신접종 조기 완료, 모임 자제 및 농장 매일 소독을 꾸준히 실천해 온 정책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방역대 내 집중 관리, 방역대 밖 일상 회복'으로 방역 정책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제적으로 확산세가 간 모임 자제는 구제역 종식 시까지 유지하지만, 방역대 밖 지역은 일상과 영농을 위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방역 초기부터 추진해 온 '전 확산세가 1:1 전담관제'는 방역대 농가에만 유지하고, 통제초소 야간 운영은 지역별 순환조 점검 방식으로 변경한다.

벚꽃이 만개한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일대의 100리벚꽃길에는 상춘객을 대비해 소독시설 4개소를 추가 운영한다.

동시에 1일부터 전국 동시 소 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영암군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백신을 공급하고, 4월말까지 농가가 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50두 미만 농가는 공수의사가 접종 지원에 나서고, 50두 이상 농가는 자체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영암군은 지난해 11월 영암을 한 농장



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기 때문에 확산세가 구제역 방역과 함께 럼피스킨 백신 접종도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승준 영암군 축산유통과장은 "소독 약이 필요한 농가에 3차로 소독약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구제역 방역대 내 317곳

농가는 이달 7일부터 소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해 주기 바란다. 전국 최고 품질의 영암 한우 명성을 되찾기 위해 확산세와 백신 접종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장성군,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600여명 동참

축령산 일원 비자나무 5500주, 산벚나무 250주 식재

장성군이 28일 장성 축령산 편백숲 일원에서 '제8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전라남도 주최, 장성군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명창한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김한중 장성군수를 비롯해 도·군의회 의원, 공직자 등 60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4년생 비자나무 5500주와 산벚나무 250주를 심으며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청렴 한 그루가 청렴한 숲을 만들어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플래카드를 들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직자들과 함께 '청렴비자나무'를 심은 김한중 군수는 "천년 비자숲과 청렴 실천 결의를 함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올해 장성군은 110헥타르(ha) 면적에 편백나무, 목백합, 상수리나무, 비자나무 등 20여만 본을 식재하는 조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산림청이 '100대 명품숲'으로 선정한 축령산 주변에는 '천년 비자숲'을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장성/황해연 기자

강진군이 지난달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 청렴 시책 공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번 공유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한데 안주하지 않고, 2025년 1등급 달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외부청렴도는 유사 기초자치체

강진군, 청렴도 1등급 달성 위한 청렴시책 공유회 개최

내부청렴도 제고·부패 취약분야 개선 전 부서 참여형 시책 본격 가동

평균보다 높은 반면 내부청렴도는 낮은 점이 지적되면서 조직 내 청렴 체감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공유회는 기획홍보과장의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의 인식 개선과 청

렴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군수 주재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군은 이번 공유회를 시작으로 ▲부서별 특화 청렴 시책 발굴·추진 ▲기관장 주관 청렴 대책 회의 개최 ▲우수부서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청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을 통해 전 부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렴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청렴은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공직자 모두가 청렴 실천에 앞장서 군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 강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1:1 맞춤형 민원안내

곡성군 '민원코디' 제도 도입했다

곡성군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코디'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배려대상자가 곡성군청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더욱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도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이 있었지만, 복잡한 절차와 어려운 용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더욱 친절하고 세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코디를 배치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민원코디로는 공공근로, 청원경찰, 사회복지요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원코디는 곡성군청 민원실 내에서 사회배려대상자가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담당한다. 주요 역할로는 ▲민원서류 작성 지원 ▲절차 및 처리 과정 설명 ▲기관 내 이동 도움 ▲필요한 추가 상담 연결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의 경우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제작한 외국인을 위한 민원 서식 해설본(배

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을 통해 민원 안내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줄어들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친근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곡성군은 민원코디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 중 민원 응대 요령 및 민원 처리 업무 관련 전문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원 코디들은 사회배려대상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익히게 된다. 교육을 마친 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원코디 제도를 시행하여 보다 친절하고 체계적인 민원 안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원코디 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회 배려 대상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곡성/이경수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3월 29일 화순군 청소년참여기구 및 청소년동아리 연합회 발대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 사업 발굴, 제안, 모니터링에 참여할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평가를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로 관내 9세~24세 청소년 각각 17명, 19명이 위촉됐다.

화순군 청소년참여기구 및 청소년동아리연합회 발대식 성료

청소년 위원, 청소년 동아리 대표 등 60여 명 참석

해당 청소년위원은 ▲정책 발굴과 제안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타지역 참여기구와 교류 ▲청소년 문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한 해 동안 활동한 청소년들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인정 △활동 증명서 발급 등 각종

활동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올해 처음 구성된 청소년수련관 동아리연합회 발대식에는 13개 동아리 대표 26명이 참석하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재능 계발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자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4월부터 시민편의를 위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된 행정복지센터는 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황전면, 월등면, 상사면 등 8개소로 기존 별량면에서만 시행하던 서비스를 총 9개소로 확대했다.

그동안 사진관이 없는 면 주민들은 증

순천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원스톱 서비스 확대

8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원스톱 서비스 시행

명사진을 찍으려면 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순천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진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료 촬영 및 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이 필요한데,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시

민들은 사진을 촬영하여 다시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원스톱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062-525-9775

